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채움보다 비움의 미학으로

수행자에게 가난은 부끄러움 아냐
초발심 충실한 승려 덕목을 지켜야

평범한 이야기,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겠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시인은 배가 고파야 시(詩)를 쓴다. 배부른 시인, 할 일 많은 시인, 명예를 쫓는 시인은 시(詩)쓰는 일을 게을리 한다. 창작에 대한 목마름, 설렘이 졸아들었기 때문이다.

시 쓰는 작업보다 다른 일에 정신이 쏠려 있기 때문이다. 생활이 풍요로우면 시에 대한 열망과 의욕이 사라져가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배부른 승려가 있다고 치자. 그 승려는 색깔만 승려일 뿐 승려의 본분사(本分事)에서 멀어진지 오래일 터이다. 순수와 진솔함은 사라져 속물근성으로 뒤바뀌고 타산적 계산놀이에 분주함만 더할 터이다.

순수해야 할 신앙마저 흥정의 대상이 되고 넘치는 재력으로 조직 따위를 길들이고 있다면 그는 무늬만 승려일 뿐 진정한 의미에서 구도자는 아닌 것이다.

어떤 분이던 승려가 되기 위해 처음 생각을 굳힐 때는 크고 작은 장벽의 괴로움에 뜬눈여행을 겪었을 것이다. 부처님의 경전을 배우며 환희심으로 발심(發心)하는 분도 있고 모태신앙에 젖어 막연하게나마 승려의 꿈을 키운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출가(出家)의 관문은 통과의례처럼 석가모니의 사문유관(四門遊觀)처럼 무상함과 괴로움 허무의 그림자를 해결하기 위해 출가를 결심하게 된다. 출가 동기에 대한 정답은 정해져 있을 리 없으므로 이쯤해서 출가이후로 넘겨보자.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是變正覺)'이란 말이 있다. 처음 발심 그대로 바른 깨달음을 완성한다는 의미일 터이다. 처음에 발심했던 그 마음 그대로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라는 경책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다.

많은 스님들이 9할이 넘는 스님들이 초발심시변정각의 마음으로 다지고 채찍질하며 게으름 없이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고 있다. 다만 지극히 일부이긴 하나 초발심(初發心)이 변하여 깨달음이 아닌 제도권의 오욕락에 물들어 간다는 사실이다. 신도 숫자 늘리는 일이 사찰경제에 보탬이 되는 계산놀이에서, 사찰 홍보가 부처님의 가르침 중심에서 영험설화를 흉내내는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도량으로 둔갑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불교계 언론매체의 광고에는 상식과 기본이 흔들리는 상업성 사찰 홍보물이 쏟아져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력없는 스님들이 출연을 자제하면 좋으련만 교수와 거사설법이 공감대를 더욱 키워가는 현실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열려있으나 그 열린 가르침을 몸과 마음으로 녹이는 구도열망은 날로 엷어지고 있다. 현실적 타협을 앞세워 제도권의 세속화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신도들의 주머니는 비어있어도 주지스님의 주머니는 비어있는 경우는 드물 터이다. 신앙이 돈으로 흥정되어 거래 된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은 마음 편히 돌아가신 분들의 천도재도 사찰 찾아 지낼 수 없을 만큼 500만원, 1000만 원에서 턱걸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승려가 신도들을 위해 울리는 목탁에도 기도기간에 따라 동참금도 비례하여 올라가는 현실이다. 궤도 이탈을 즐기는 일부 사찰에서는 사주풀이와 부적을 팔아 지성인들의 실망과 외면을 키우고 있다.

지극히 일부이긴 하나 TV에 출연하는 스님들의 장삼과 가사가 천연실크로 된 몇 백만 원짜리 옷을 걸쳤다면 가난한 대중 앞의 떳떳한 옷차림일 수 있겠는가? 조금은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며 승려의 본분사(本分事)에서 크게 이탈하지 말 일이다. 상식이 통할 수 있게 기본에 충실한 승려의 기본덕목을 지켜야 한다.

비구는 걸사(乞士)이다. 승려의 몸에 걸치는 가사는 원래 분소의(糞掃衣), 똥 닦고 걸레질하던 천으로 이어 만든 옷에서 비롯되었다. 수행자에게 있어 가난은 불편함일 수는 있어도 부끄러움이 될 수 없는 법이다. 욕심은 키울수록 병(病)을 키우지만 버림과 비움은 텅 빈 충만의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바른 길이다.

원상(圓相)으로 법을 드러내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원상(圓相)은 둥근 모양 곧 동그라미(○)를 말한다. 보통 일원상(一圓相)이라고 말하는데 굳이 원상의 상징적 의미를 설명하자면 모든 상대적 분별이 사라져 원만하게 최후의 절대 진리가 구현된 경지를 나타내는 부호(符號)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원상을 선종에서 활용해 온 사례가 자주 있었다. 일반적으로 원상을 두고 진여(眞如), 법성(法性), 불성(佛性), 또는 실상(實相)을 나타내는 수단이라고 말해 오기도 했지만 선종에서는 그런 개념마저도 두지 않는다. 다시 말해 어떤 의미의 한계를 두지 않는다는 말이다. 손가락이나 불자(拂子) 또는 주장자 등으로 허공이나 바닥에 원상을 그려놓고 선기(禪機)를 드러내거나 상대를 점검하는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원상을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남양혜충(南陽慧忠:?~775) 스님이었다고 하나 실제로는 마조도일(馬祖道一:709~788) 선사가 먼저 사용했다는 설도 있다.

〈경덕전등록〉에 수록된 〈경산도흠전(徑山道欽)〉에 나오는 이야기다. 마조 선사가 경산 스님에게 편지를 써 보냈는데 편지 안에는 글이 없고 원상 하나만 그려져 있었다. 편지를 뜯어본 경산 선사가 원상 안에 점을 하나 찍어 다시 봉하여 마조 선사에게 보냈다. 이 이야기를 혜충 국사가 전해 듣고 말했다.

"경산이 마조에게 속았구나."

〈선문염송설화〉 165칙에는 어떤 학인이 찾아왔을 때 마조 선사가 원상 하나를 그려 놓고 말했다.

"들어와도 때리고 들어오지 않아도 때릴 것이다."

그러자 학인이 원상 안으로 바로 들어왔고 마조 선사는 그를 때렸다. 학인이 말했다.

"스님은 저를 때리시면 안 됩니다."

마조 선사는 주장자에 기대어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또 남전이 귀종, 마곡 두 스님과 함께 혜충국사를 찾아가던 도중 길바닥에 원상 하나를 그려 놓고 말했다.

"제대로 말하면 함께 가겠다."

그러자 귀종 선사가 그려놓은 원상 안에 들어가 앉았고, 마곡 선사는 여인의 절을 하였다. 남전 스님이 이렇다면 가지 않겠다고 하자 귀종 선사는 "무슨 속셈인가?"라고 했다. 남전 선사가 두 스님을 불러 되돌아갔다.

〈설화〉에는 길바닥에 원상 하나를 그려놓은 뜻이 무엇인가? 원상의 제작이 혜충 국사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원상을 그려 그를 만나려 한 의도라고 하였다.

〈금강경오가해〉 '설의'에도 원상에 대한 이야기가 설해져 있다.

"원상을 만든 것이 남양혜충 국사로부터 시작되었다. 국사가 탐원(耽源) 스님에게 전해주고 탐원 스님이 앙산(仰山) 스님에게 전해 주었다. 탐원 스님이 어느 날 앙산 스님에게 말했다.

'국사가 육대조사의 원상 97개를 나에게 주시면서 내가 멸도한 뒤 30년쯤에 한 사미가 남방에서 와 크게 현풍을 드날리게 될 것이니 그때 이 원상을 전하라 하셨는데 내가 이 일을 살펴보니 그대를 두고 말한 것 같아 이제 그대에게 부촉하니 잘 받들어 지니도록 하라.'

그런데 앙산 스님이 원상을 받았다가 불에 태워버렸다고 한다. 탐원 스님이 뒤에 이를 알고 제불 조사가 전한 것인데 어째서 태웠냐고 묻자 한 번 보고 그 뜻을 이미 알아버렸으니 일상에 쓰는 것이 원상이니 견본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서 그랬다고 대답한다. 탐원 스님이 다시 자네는 그렇다 치고 뒤에 사람은 어쩔 것이냐고 하자 앙산 스님이 다시 원상을 그려서 탐원 스님에게 바쳤다고 한다.

원상을 그려서 주고받았다? 도대체 원상의 정체는 무엇인가?

원상송(圓相頌)이라는 게송이 전해진다.

"옛 부처 태어나기 전에 / 한 둥근 모양이 엉켰으니 / 석가도 오히려 알지 못했거늘 / 가섭이 어찌 전할 손가? (古佛未生前 凝然一相圓 釋迦猶未會 迦葉豈能傳)

법을 전하되 전함이 없는 부전(不傳)의 묘(妙)를 원상을 차용하여 대변시킨 것 같다. 원상의 사용이 인도에서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부법장전(付法藏傳)에 서천 14조 용수보살이 법좌에서 몸을 숨기고 원상(○)을 나타내자 제자 제바가 말한다.

"존자께서 부처님 몸의 형상을 드러내어 우리에게 보이시는구나."

때론 원상을 보름달에 비유한다. 무상삼매(無相三昧)가 보름달과 같다 하고, 이는 불성이 막힘없이 트여 텅 비고 밝기 때문이라고 한다.

보살은 중생을 이롭게 한다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시즌2
⑤보살의 즐거움

勝解脫品第十七

更有餘三昧定慧境界眾生皆悉作佛。以有此三昧故不欲取於解脫。頭陀除一切過惡寂滅如在口中。ßk濟者為眾生苦故而不證取。

定慧悲自生/ 見世間眾苦/ 世間ßk濟者/終不越度去

如海潮終不過限。修悲者百劫苦行。若能度於一人終不出生死力。能得解脫。為眾生故處於生死。於三種施一切時常如節會。不樂己樂為他作樂。日夜於生死中而不處。歡喜快樂如處涅槃。菩薩常為眾生作利益業歡喜樂味智。菩薩乃於夢中得歡喜樂。勝於解脫。菩薩得為他作樂歡喜氣味。諸有眾生不得氣味證於解脫。

번역 | 승해탈품 제17

한편, 나머지 삼매와 정혜의 경계로 중생이 모두 부처를 이루나니, 여기서 삼매가 있기에 해탈을 취하려하지 않으며 두타행으로 일체의 과오를 제하니 적멸이 입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진실된 구제자는 중생을 괴로움에서 건지려 해탈을 취하지 않습니다.

선정과 지혜와 자비로 스스로 나서/ 세상의 중생을 보나니/ 세상의 진정한 구제자는/ 끝내 훌쩍 건너가지 않습니다.

조류가 끝내 한계를 넘지 않듯이 자비 수행자는 백겁의 고행을 하되, 만약 한 사람이라도 구제할 수 있다면 생사의 힘에서 끝내 벗어나지 않나니, 해탈을 얻을 수 있어도 중생 때문에 생사에 거합니다. 세 가지 보시에는 언제나 절기처럼 모이고, 자신의 즐거움은 즐기지 않으며 타인을 즐겁게 합니다. 밤낮으로 생사에 머물지 않으며, 환희와 쾌락에는 열반에 머무는 듯합니다. 보살은 늘 중생의 이익 되게 하려 지혜의 맛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업을 짓습니다. 보살은 꿈에라도 즐거워하는 것은 수승한 해탈이니, 보살은 타인을 위하는데서 즐겁고 환희를 맛보되 중생은 해탈을 증득할 기미를 얻지 못합니다.

해설 |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입 안에 먹을 걸 넣어두고 배고플 것을 걱정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수행자에게 해탈이란 것도 그렇다.

순간순간 삼매 속에서 사니 무슨 해탈을 따로 구하려 하겠는가. 근심이 있어도 그 근심을 걱정하지 않는 법이다. 그러니 언제나 평안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사조차 이미 생사가 아닌 수행의 길에서는 힘겨운 삶과 생사의 파도에 휩쓸려도 두려움이 없다.

오로지 수행자는 삼시(三施)에 나아감에 있어 명절의 모임에 가는 것 같은 기쁨으로 나아간다도 제바 보살은 설한다. '삼시(三施)'란 재물을 보시하는 재시(財施), 법을 보시하는 법시(法施),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외시(無畏施)다. 또한 보살이 즐겨 맛보는 것은 지혜라고 말한다. 그 지혜의 즐거움은 역시 남을 기쁘게 하는데서 얻을 수 있고, 남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아는 지혜라고 말한다.

남을 기쁘게 하는 지혜의 방법으로는 두타행(頭陀行)을 실천한다고 설한다. 두타행이란 의식주(衣食住)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말한다. 수행자는 부하면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하면 가난에 처할 줄 안다는 말이다. 어떤 도반이 내게 한 고백이 생각나서 소개하고자 한다.

"출가할 때 생각했었지. 이생에 출가하여 부처님 법을 배우는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저 논두렁을 베고 누운들 무슨 아쉬움이 있겠는가."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 (52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 교육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7년 9월 7일 (목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출 강 반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 신 반 : 지방 거주자를 위해 통신교육을 실시함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최신형 대출력 앰프로 보상 교환설치 실시!!

단 160만원 만 준비하시면, 현재의 앰프설비를
300만원대 고급음향 설비로 교체 해 드립니다

※ 설치 희망일 3~4일 전에 예약 바랍니다. (종래 사용하던 앰프, 스피커는 보상, 회수해 옵니다!)

고출력 파워드 믹싱 앰프



USB탑제 최신형 800 왓트

◈ 선착순 예약 주문하시는 사찰 10곳에 한해 무선 마이크 및 CD기(65만 상당)를 무료 보시합니다.

추가 설치 및 보시 품목
① 대출력 800 왓트 파워드 믹싱 앰프 1대 (자체 USB탑제)
② 입력 450W 대출력용 스피커 1조
③ 무선 마이크 1대 (무료보시)
④ 최고급 CD기(5개 연속 사용) 1대 (무료보시)

"중고 앰프 다량 보유!"

무선마이크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CC 플레이어 (연속 5개 사용)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